

# 산과 사랑에 빠졌던 작가... 마법 같은 색채에 빠지다

July 7, 2022 | 김정화 기자

Page 1 of 1

## 산과 사랑에 빠졌던 작가 마법 같은 색채에 빠지다

추상 선구자 유영국 20주기展

‘회화 70점·드로잉 22점 등 전시  
산과 자연 모티브 추상화 몰두  
이건희 전시·RM 관람 유명세

“색채란 써보면 참 재미있는 거요. 옆에 어떤 색을 가져와야 이 색도 살고, 또 이 색도 살고. 나는 색채는 균형과 하모니를 이루도록 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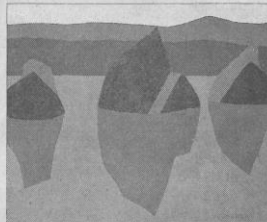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작가 유영국(1916~2002)의 작품에선 긴장과 평화가 동시에 느껴진다. 산과 바다를 담은 기하학적 구도 아래 수많은 색이 번주하며 조화를 이룬다. 비슷한 초록과 파랑이어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연둣빛 열은 초록과 짙은 초록, 청록과 새파란색, 질푸른 색이 모두 들어 있다. ‘어떤 색을 가져와야 이 색도 산다’는 생전 작가의 말처럼 그는 다채로운 조합을 통해 조형 실험을 완성했다.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영국의 20주기 기념전은 그의 작품을 통해 작가적 집념을 따라갈 수 있는 전시다.

공공 미술관이 아닌 상업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인데도 대표 회화 70점과 드로잉 22점, 사진 작품, 작가 활동 아카이브 등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갤러리 전관(K1-K2-K3)에 전시된 그의 작품과 자료 등은 시기별로 구분됐다. K1에선 대표작과 초기작을 소개하고 K2에선 한창 전업작가로 활동하던 1970년대와 1990년대 작품을 걸었다. K3에선 기하학적 추상과 조형 실험이 절정에 달했던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초기작들을 볼 수 있다.

유영국은 이번 컬렉션 전시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인증샷 등으로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유영국 작품의 상당수는 제목이 영어 'Work'로 단출하다. 절제의 삶을 지향한 개인적 철학이 엿보인다. 그림은 1992년 작.

국제갤러리 제공

만, 사실 화가로서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은 않았다.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 문화학원에서 처음 추상미술을 접했고, 귀국 후 양조장 운영 등을 하며 일상 생활을 이어 갔다. 그동안에도 단체전을 열었지만, 처음으로 개인전을 연 건 마흔여덟 살이 되던 1964년이다.

그 이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 일컫는 작가는 그때부터 개인 작업에 몰두하며 산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추상 회화를 처음 선보였는데, 이후 철저히 계산된 기하학적 구도와 강렬한 원색 등 현재의 유영국표 작품이 탄생했다.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말처럼 창발적인 색채와 예민한 선, 그림자에선 추상이 아닌 풍경화가 엿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유영국이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집요하게 천착한 점, 선, 면, 형, 색이라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가 어떻게 무르익는지를 찬찬히 살펴볼 수 있다. 초빙 큐레이터로 전시를 기획한 이용우 홍릉중문대 교수는 “유영국은 사진을 공부하며 새로운 시도를 탐구하는 한편 색채를 두껍게 쌓아 올리는 등 표현의 다변성을 고심하던 작가”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갈고 다듬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8월 21일까지. 김정화 기자